

---

---

# 산란초기사료 kg당 96 원30 전 가능하다

〈배합사료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이미 양계용 배합사료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되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양축가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1월14일(금) 한국과 학기술원에서 열렸던 한국영양사료연구회 창립 10주년기념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취재 : 김 용 화 기자

## 1. 수입개방의 배경

배합사료 생산 쿼터제도로 인한 어려움 속에 지난 7월 1일자로 양계용 및 애완동물 배합사료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고시되었다.

우선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시장개방압력 때문에 농산물과 서비스업 가운데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지 않은 품목을 선정 수입자유화조치를 계획보다 앞당겨 조치를 취할 방침에 있는 실정이다. 지적소유권, 보험, 담배 등에 관한 한미통상협상타결 이후에도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부는 알팔파, 쇠고기, 포도주, 포도오렌지, 냉동감자, 프루트컵테일 등 품목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을 조기 시장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수출만 하는 식의 정책은 서서히 외부의 압력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수입개방은 사료측면에만 국한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축산업 분야와 연관산업에도 그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방편에 머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배합사료와 이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만이 해결의 열쇠라 본다.

## 2. 수입자유화의 문제점

### (1)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국내 배합사료공장은 총 81개로 85년 생산실적은 6백45만7천톤으로 124%의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동율 124%는 1일 8시간,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타 제조업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료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1일 2~3교대 되어야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료업계는 시설과잉 양상이 현저하다. 이 때문에 배합사료 수입자유화가 완제품으로 이루어질 때 국내 사료업계는 시설자원의 유희화현상이 발생한다.

이 유희화 현상은 국내사료업계 뿐 아니라 동물약품, 단미사료, 옥수수 및 보리경작업 등 타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이다.

현 배합사료원료의 수입관세는 곡류의 경우 7%, 강피류 7%, 식물성박류 10%의 관세가 책정된다. 미국, 중공, 태국의 경우 사료원료 생산 수출국이며 일반적으로 수출국들은 정부보조를 받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고 일본 또한 모든 사료원료에 대하여 관세가 없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외화절감을 위하여 곡물사용비율을 64%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이어 품질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 약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 (2)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는 비단 사료업계에만 국한하여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합사료를 시발로 축산물들이 차례로 언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만일 축산물이 수입이 개방된다면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다. 사료원료 수출국과의 축산물 경쟁은 상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음에서와 같이 사료원료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져서 경쟁력이 자연 떨어지게 된다.

〈표 1〉 주요 사료용 원료의 관세내역

품 목	한 국	일 본
옥 수 수	7 %	0(AA)
수 수	7 %	0(AA)
소 맥	5 %	0(IQ)
대 맥	7 %	0(IQ)
호 밀	7 %	0(AA)
소 맥 피	7 %	0(AA)
G. S. P.	7 %	0(AA)
타 피 오 카	7 %	0(AA)
대 두 박	10%	0(AA)
채 종 박	10%	0(AA)
해 바 라 기 박	10%	0(AA)

〈표 2〉 한국과 일본간의 배합사료 가격 비교

	한국(원/kg)	일본(원/kg)	비 고
대추사료	171.95원	241.80원	일본은
산란계	176.24	254.20	벌크사료가격,
육계전기	242.94	329.00	한국은
육계후기	231.60	292.30	평균판매가격

1986년 6월현재, 1 ¥=5.5원(자료: 사료협회)

〈표 3〉 원 재 료 비 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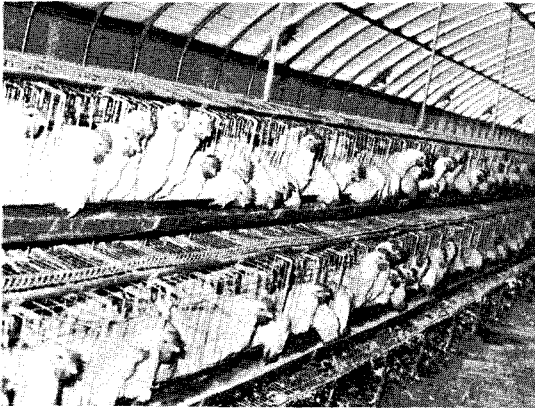
군	본	산란초기사료 (원/kg)	육계후기사료 (원/kg)
무관세, 무제약시		96.3	123.2
관세부과, 무제약시		102.9	129.5
관세부과, 현행제약조건		135.7	167.2

\* 사료협회 기술연구소 분석치임.

〈표 4〉 국내산 원료와 국제가격과의 대비

(단위: 원/kg)

품 목	원산지	수입가격원가 (A)	국내산가격 (B)	B/A비율 (%)
옥수수	태 국	86	318	369.8
보 리	캐나다	70	338	483
대두박	중 공	168	223	132.7



### (3) 배합사료업계업계에 미치는 영향

국내 배합사료업계가 시장개방으로 형평적 차원에서 노출되는 불리점은 첫째 수입곡류 사용한다.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업계는 제품경쟁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외화절약이라는 명분하에 전체 곡류사용은 물론 개별공장의 수입사료곡류사용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품생산에도 제약이 따른다. 86년도 곡류사용 한도량은 3백84만5천톤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사용한 곡류 사용량은 2백89만1천9백74톤으로 월평균 36만1천4백96톤을 사용했다. 이추세로 가면 약49만3천톤가량의 곡류가 부족하게 되어 곡류수입쿼터가 지속될 경우 과부족에 대한 제품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료원료 수입시 높은 관세제도이다. (표2참조) 일본은 무관세 수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곡류쿼터관세제도 뿐만 아니라 원료의 자유선택구매에 있어서도 불리한 입장이다. 이로 인한 배합사료제조원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금년초 태국산 옥수수 사용에 제동이 걸린점, 그리고 값싼 곡류원료 대신 값비싼 강피루(소맥피)를 구입사용해야 했던 점들이 그 좋은 예이다.

최근 형평차원에서 국내배합사료업계의 불리한 점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무제한 무관세 하에서 배합사료 최소비용배합비를 산출해본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현행 여건하에서 보다 40~50%가 유리해진다. 아울러 현행 수입사

료에 대한 20% 관세부과는 수입사료의 제한에 안장치로는 적합치 못하다.

## 3. 국제경쟁력 향상

### (1) 품질경쟁력

배합사료는 최종산물인 축산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고 제품생산공정이나 품질관리 면에서 전문성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료의 품질을 결정하는 공정을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즉 배합표작성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료의 가공처리를 위한 기계적 공정이다. 배합표작성에는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동안 사료배합표 작성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공정에서부터 발전하여 여러가지 방대한 부속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배합표작성 뿐만 아니라 구매, 생산, 재고관리, 판매가격결정, 품질관리, 고객서비스 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프트웨어나 영양소요구량이나 원료에 대한 정확한 영양소함량 및 이용율에 관한 자료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 여러 연구기관에서 활발히 자료축적을 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선진국과 대등한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설비수준으로 보면 선진국의 규모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본다. 단지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산의 자동화에 개선을 이룬다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료의 제조형태에 있어서도 유럽에서는 산란계사료를 전량 펠렛사료로 생산하고 있다.

가루사료에 비하면 펠렛사료는 원료사료의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영양소 이용율이 증가하고 밀도의 증가, 분진의 감소 등으로 생산성 향상과 취급중 감량의 감소로 가공비용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밀크시스템과 자동급이시스템에서는 펠렛의 잇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2) 가격경쟁력

현행 관세제도로 인한 배합사료제조용 원료가

비싼 탓으로 이 제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는 축산물을 생산기 위한 중간재이므로 사료자재와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료원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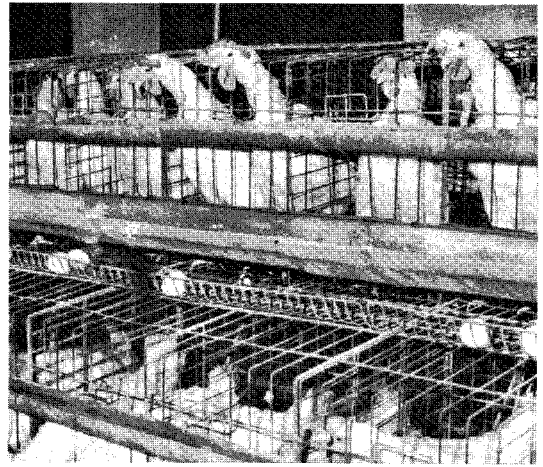
다음은 원료사용량 제한에 따른 사료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

85년 배합사료 총 생산량 6,451,072톤에 비하여 16%증가한 7,481,777톤을 86년 총 배합사료 생산예산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85년 사료공장에 배정되어 사용된 국산 보리가 287,221톤이고 옥수수가 56,515톤이었다. 이러한 국산 곡류를 생산사용할때 원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원료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을때 원가지수를 100으로 하면 여러가지 제한조건에 따라 사료생산원가가 상승된다.

특히 국산 곡류를 85년 수준으로 사용할 경우 생산원가가 31.7% 상승된다. 이는 사료 톤당 35,773원으로 전제로는 연간 2,676억원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이것은 수입원료를 무관세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포함시키면 생산원가는 40%로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외국에 비하여 기술외적인 제도적 요인으로 40% 정도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우리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도입이 금지된 사료용 보리나 옥골분 등 여러가지 원료들을 유리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고 곡물쿼터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제로 한번 사료곡물을 구매할때마다 2~3억원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상승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산곡류의 사용은 부가가치가 높은 주정이나 식품 및 기타 공업제품생산용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본다. 만일 보리를 사료용으로 국내에서 재배한다면 수확량도 늘고 가공비용도 절약되어 현재의 배정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 론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강화 방안을 알아보았다. 사료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과 원료의 영양소 함량 및 이용율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를 습득하고 응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합사료 수입자유화에 대처하는 국내 사료업체가 최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형평조건의 부여이다. 제품이 자유화된 시점에서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곡류 및 옥수수 등의 사용비율과 곡류사용한도량 등은 폐지해야 한다.

하루속히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자유화 품목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값비싼 국산 보리, 옥수수, 가공대두박의 우선적 사용은 국내배합사료의 가격경쟁력을 저해시키기 때문에 국내 부존자원활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사료업체에서도 형평차원의 불리함은 논하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수입개방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배합사료의 품질경쟁에 노력을 기울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료수급정책의 기본목표가 사료의 품

질은 높이면서도 가격은 안정시키되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 증대로 도입사료 원료는 절감하면서도 도입원료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둘 하나로 4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다.

이들 4개 항목은 서로 반대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어느것 하나 가뻐게 다스릴 수 없으며 그렇다고 어느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3마리의 토끼를 놓치게 된다.

지난 11월의 당초목표에 대한 결과를 보면  
기본목표

- 도입사료 원료의 절감
  -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활용 증대
  - 사료 절감 교육 및 홍보 강화
- 도입원료의 안정적 공급
  - 적기 적량 확보
  - 도입선의 다변화
- 사료의 품질 향상
  - 양질의 사료생산 보급
- 사료의 가격안정
  - 사료 곡물의 다양화

- 자체 경영개선 유도

1. 금년에 750만톤 이상의 배합사료가 생산 공급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보다도 도입사료 원료를 절감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증명되었으며

2. 도입 사료곡물의 쿼터강행으로 많은 구매에 제약과 낭비가 초래되고

3. 곡물 사용 및 대두박 등 원료사용 규제는 저에너지 저단백사료를 제조하게 유도하여 물량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 사료곡물보다 비싼 강피류 수입 등 웃지 못할 결과를 양질의 사료생산 보급은 양축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4. 특히 가격면에서는 쿼터량의 소진으로 값이 쌀때도 구매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는 밀가루와 옥분까지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등 30~40%의 사료값 인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번 영양사료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되는 문제점들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4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 4마리를 다 놓치고 말았음이 증명되었다. ♣

흙은 거짓이 없다

**土心오골계**

- 오골계는 특징이 뚜렷한 품종이어야(관두 5발 · 흑색피부)
- 농원 · 유원지의 상비 토산식품
- 동남아인의 기호식품
- 약용에서 대중식품으로

\* 육추의 어려움을 대신해 드립니다.

모든 계종 분양함(초생추 · 중추 · 성계 · 종계)

오골계 전문 취급농장

**土心농장**

제 1 농장 :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1167 - 4  
전화 : 0344 - 62 - 8027

제 2 농장 :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동패리 산12 - 14  
전화 : 0348 - 2 - 8639